

제2부

심·의결현황

제1장 심의 운영방침

제2장 심·의결현황 및 분석

제1장

심의 운영방침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안전을 심의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심의 운영방침을 정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에 규정된 제재조치 가운데 '사과문 게재' 부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2015년 7월 30일 결정, 2013헌가8)됨에 따라 사과문 게재를 제재조치로써 활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 정정보도문 게재 조치는 사실관계에 양 당사자의 다툼이 없이 허위 사실이 보도된 것이 명백한 경우에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반론보도문 게재 조치는 보도로 인해 피해를 받는 자의 반론이 전혀 반영되지 않거나 충분히 게재되지 못하여 반론게재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용하기로 하였다.
-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경고결정문 게재 및 주의사실 게재 결정은 일종의 변형결정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정정보도를 명할 수 없으나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의 정도가 심하여 독자들에게 해당 언론사가 경고나 주의 조치를 받은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을 때 적용하기로 하였다.
- 그 밖에 선거기사의 내용이 선거법과 심의기준을 위반하여 유권자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고 결정을, 선거기사의 내용이 선거법과 심의기준을 위반하여 언론사의 주의를 환기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의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또한 해당 기사의 내용에 의도성이 없고 선거법과 심의기준을 위반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권고 조치하기로 했다.

제2장

심의·의결현황 및 분석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는 선거기사에 대한 자체심의와 후보자(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시정요구심의로 구분되어 진행됐다. 반론보도청구회부는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I. 심의·의결현황 개요

1. 자체심의

심의실무를 담당하는 기사심의팀 직원 및 심의보조원 3인은 대상매체(중앙일간지 23개, 지역일간지 96개, 기타일간지 4개, 종합주간지 14개, 지역주간지 216개, 월간지 7개, 뉴스통신 6개 등 총 366개)의 선거관련 기사내용을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공직선거법과 선거기사심의기준을 위반한 기사를 가려낸 후 이를 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심의·의결하는 절차를 거쳤다.

심의위원회는 총 9차례의 회의를 개최해 공직선거법 및 선거기사심의기준을 위반한 55건의 자체심의 안건에 대해 결정을 내렸다. 주의가 33건(60.0%)으로 가장 많았고, 경고 21건(38.2%), 권고 1건(1.8%) 순이었다.

위반유형을 살펴보면 공정성과 형평성 위반이 39건(70.9%), 기고 등 게재금지 위반 9건(16.4%), 광고 제한 위반이 4건(7.3%), 객관성 및 사실보도 기준 위반이 3건(5.5%) 순이었다.

각 매체 유형별 의결현황을 보면, 일간지는 35건의 제재를 받았으며 이 중 중앙일간지는 4건, 지역일간지는 31건의 제재를 받았다. 일간지 제재 35건을 위반 유형별로 보면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27건(77.1%)으로 가장 많았고, 기고 게재 금지 위반이 4건(11.4%), 광고제한 위반이 3건(8.6%), 객관성 및 사실보도 위반이 1건(2.9%)으로 나타났다. 결정내용별로는 경고가 18건(51.4%)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주의 결정이 17건(48.6%) 내려졌다.

주간지는 20건의 제재를 받았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종합주간지에 대한 제재가 1건, 지역주간지 19건이었다. 위반유형별로는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12건(60.0%), 기고 등 게재금지 위반 5건(25.0%), 객관성 및 사실보도 위반 2건(10.0%) 광고제한 위반 1건(5.0%) 순이다. 결정내용별로는 주의가 16건(80.0%)으로 가장 많았고, 경고 3건(15.0%), 권고가 1건(5.0%)으로 나타났다.

자체심의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한 사례는 1건으로 재심 결과 기각되었다.

<자체심의 매체유형별 의결현황>

| 간 별 | 계 | 위 반 유 형 | | | | 결 정 내 용 | | | | |
|-------|----|-----------------|------------------|----------|------|----------------------|------|-------|-------|------|
| | | 공정성 및 형평성 | 객관성 및 사실보도 | 광고 제한 | 기고 등 | 정정 보도문 등 게재 | 경고 | 주의 | 권고 | |
| 일간신문 | 중앙 | 4 | 1 | 1 | 2 | | | 4 | | |
| | 지역 | 31 | 26 | | 1 | 4 | 18 | 13 | | |
| 종합주간지 | 1 | | 1 | | | | | 1 | | |
| 지역주간지 | 19 | 12 | 1 | 1 | 5 | | 3 | 15 | 1 | |
| 월간지 | 0 | | | | | | | | | |
| 뉴스통신 | 0 | | | | | | | | | |
| 총 계 | | 55 | 39 | 3 | 4 | 9 | 0 | 21 | 33 | 1 |
| | | 100.0% | 70.9% | 5.5% | 7.3% | 16.4% | 0.0% | 38.2% | 60.0% | 1.8% |

2. 시정요구심의

불공정한 선거보도로 피해를 입은 후보자가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시정을 요구한 건수는 21건으로 매체별로는 중앙일간지 3건, 종합주간지 1건, 지역주간지 12건, 뉴스통신 5건이었다.

심의위원회는 시정요구인과 피시정요구인의 진술을 들은 후 안건을 심의, 결정했으며, 처리결과 는 정정보도문 게재 2건, 경고결정문 게재 3건, 경고 1건, 주의 4건, 권고 2건, 취하 4건, 기각 5건이 다.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재심을 청구한 사건은 3건으로 모두 기각되었다.

반론보도청구회부 사건은 한 건도 없었다.

<시정요구심의 매체유형별 처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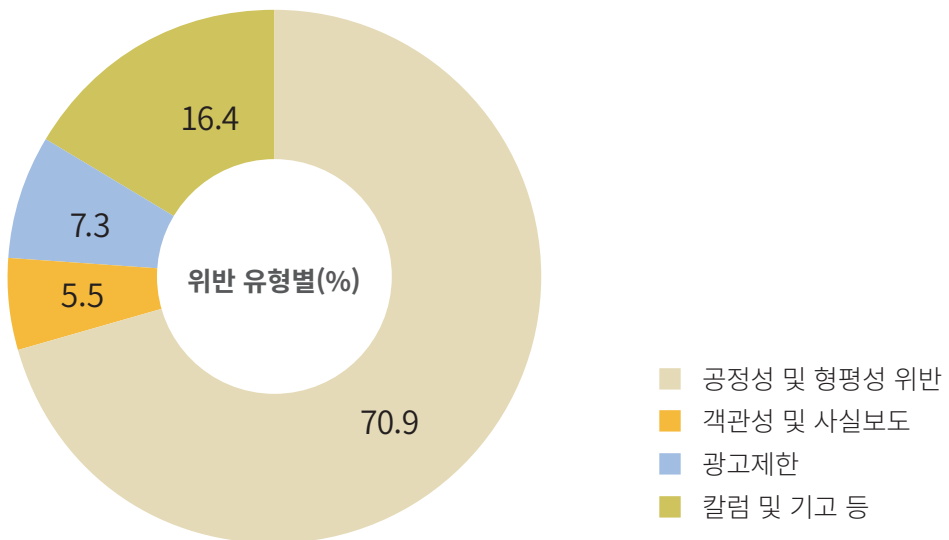
| 구 분 | 계 | 결 정 내 용 | | | | | | | | | |
|-------|----|-----------------|-----------------|-----------------|-------|------|-------|------|-------|-------|------|
| | | 정정 보도문 게재 | 반론 보도문 게재 | 경고 결정문 게재 | 경고 | 주의 | 권고 | 취하 | 기각 | 각하 | |
| 일간신문 | 중앙 | 3 | | | | | 1 | 1 | 1 | | |
| | 지역 | 0 | | | | | | | | | |
| 종합주간지 | 1 | | | 1 | | | | | | | |
| 지역주간지 | 12 | 2 | | 2 | | 3 | 1 | 1 | 3 | | |
| 월간지 | 0 | | | | | | | | | | |
| 뉴스통신 | 5 | | | | 1 | 1 | | 2 | 1 | | |
| 총 계 | | 21 | 2 | 0 | 3 | 1 | 4 | 2 | 4 | 5 | 0 |
| | | 100% | 9.5% | 0.0% | 14.3% | 4.8% | 19.0% | 9.5% | 19.0% | 23.8% | 0.0% |

II. 자체심의 분석

1. 위반유형별 분석

심의위원회가 자체심의를 통해 제재조치를 결정한 선거기사 55건을 위반유형별로 살펴보면, 공정성과 형평성 위반이 39건(70.9%)으로 가장 많았고, 기고 등 게재 금지 위반 9건(16.4%), 광고 제한 위반이 4건(7.3%), 객관성 및 사실보도 기준 위반이 3건(5.5%)으로 집계되었다. 여론조사보도 요건 관련 심의가 여심위로 이관됨에 따라 자체심의 건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비하여 감소하였다. 세부 위반유형은 다음과 같다.

<자체심의 의결현황>



가.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유형 중 대다수는 특정 후보자에 대한 홍보성 기사를 연속 게재한 것이었으며 특정 후보자의 출마선언문 또는 기자회견문 전문,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는 성명문을 그대로 보도한 경우가 있었다.

(1) 특정 후보자 관련 기사 연속 보도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의 경우 타 후보자에 비해 높은 빈도로 특정 후보자의 동정, 정견, 선거운동 관련 기사를 연속 게재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대전투데이의 경우 대전 중구에 출마 의사를 밝힌 이은권 전 중구청장에 대한 기사를 2015년 12월 15일부터 2016년 2월 12일까지 10건 게재하면서 다른 후보에 대해 거의 보도하지 않아 경고 조치되었다.

심의위원회는 강석호 현직 국회의원에 대해 8건을 보도한 경북매일, 김태원 현직 국회의원에 대해 8건을 보도한 경인매일 등 현직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이나 정견 등을 연속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서도 경고 결정을 내렸다.

(2) 출마선언문, 기자회견문 전문 보도

심의위원회는 특정 후보의 출마선언문이나 기자회견 소식과 함께 출마선언문, 기자회견문 전문을 게재한 경우에 제재조치를 결정하였다. 다만 경쟁 후보에 대해서도 비슷한 비중으로 보도한 경우에는 제재를 하지 않았다.

류화선 후보의 출마 소식과 출마선언문 전문을 그대로 게재한 파주저널의 경우 주의 조치되었으며, 강석진 후보에 우호적인 2건의 기사와 더불어 기자회견문 전문을 게재한 거창韓뉴스에 대해서도 주의 결정이 내려졌다.

(3) 특정 후보자 부각 보도

다른 후보에 대한 보도 없이 특정 후보에 대해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사진과 함께 보도한 경우도 다수 적발되었다.

허승 후보의 인터뷰 기사를 사진과 함께 전면 게재한 반월신문, 최명길 후보의 인터뷰 기사를 사진과 함께 전면 게재한 충남일보 등에 대해서도 주의 결정이 내려졌다.

선경일보는 다른 후보에 대해 보도하지 않으면서 정병국 현역 국회의원의 선거 출정식 관련 기사를 사진과 함께 보도하여 주의 조치를 했다.

(4) 기타 특이사례

심의위원회는 박인균 예비후보자의 사진이 포함된 선거운동용 명함을 그대로 지면에 게재한 현대일보에 대해서 주의 결정을 내렸다.

남해시대는 「김두관' 국회입성 확실시」라는 제목으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으나 해당 매체의 배포지역이 김두관 후보의 선거구가 아니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권고 조치 했다.

나. 칼럼 및 기고 등 게재금지 위반

선거기사 심의기준 중 칼럼 및 기고 등 게재금지 규정 위반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선거와 관련된 개인의 의견을 게재하여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유·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리고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의 칼럼이나 저술을 게재하는 경우이다. 이번 선거에서 심의위원회가 칼럼 및 기고 게재 위반으로 제재조치를 의결한 9건은 모두 후보자의 칼럼이나 저술을 게재한 경우에 해당되었다.

경인매일과 아시아일보는 박인균 후보의 칼럼을 게재하여 각각 주의 조치되었으며 현직 국회의원의 기고문을 게재한 강서양천신문과 시민일보 등에 대해서도 주의 결정이 내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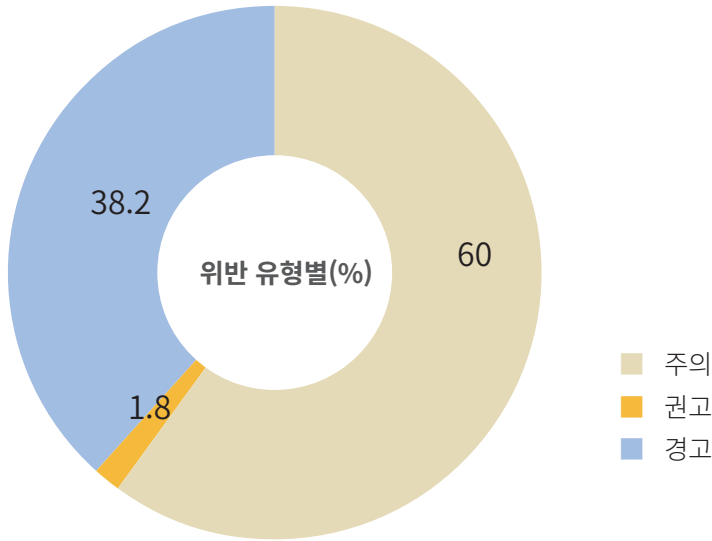
다. 광고제한

광고제한 위반 4건 중 3건은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의 명의를 드러난 저서 광고였으며, 1건은 인터넷 배너에 실어야 할 후보 광고를 실수로 지면에 게재한 것으로서 과거와 같이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유도하는 의견광고를 게재한 경우는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다.

한겨레신문, 세계일보, 아시아타임즈는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표창원, 이철희씨의 저서 광고를 게재하여 주의 조치되었으며 연수송도신문은 인터넷 배너광고용으로 전달된 기사를 지면에 게재하여 주의 결정을 받았다.

2. 결정유형별 분석

<자체심의 의결현황>



가. 경고

심의위원회는 자체심의를 통해 제재조치를 의결한 55건 중 총 21건(38.2%)의 기사에 대해 경고 결정을 내렸다. 매체 유형별로 보면 지역일간지가 18건, 지역주간지가 3건으로 나타났으며 위반유형은 모두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으로 집계되었다.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기사의 경우 일부 사진 게재, 칼럼 및 기고 등 게재금지 규정을 동시 위반한 경우도 있었다.

심의위원회는 기사의 내용, 특정 후보자 보도 횟수 및 경쟁 후보 보도 횟수, 기사의 크기, 사진 게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선거기사가 선거법과 선거기사 심의기준을 위반하여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고 결정하였다.

<경고 결정 보도 목록 -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 21건>

| 의결번호 | 매체명 | 보도일 | 지면 | 기 사 제 목 |
|--------------------|----------|---------|-----|--|
| 2016 국선 -자심5 | 경북 신문 | 12월 23일 | 1면 | 정수성 국회의원 9관왕의 위업, 의정활동 ‘명불허전’ |
| | | 12월 28일 | 3면 | 정수성 의원, 경주지역 구석구석 의정보고 나섰다 |
| | | 12월 30일 | 3면 | 정수성 의원, 주민 목소리에 ‘귀활짝’ |
| | | 12월 31일 | 2면 | 정수성 의원, 천북면·월성동 주민과 대화 |
| | | 1월 4일 | 2면 | 산업 융복합 통해 새로운 경주 건설 |
| | | 1월 6일 | 3면 | 정수성 의원, 주민불편 해소에 발로 뛰다 |
| | | 1월 7일 | 3면 | 정수성 의원, 주민숙원 귀담아 듣는다 |
| | | 1월 11일 | 3면 | 정수성 새누리당 국회의원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 보상 법률안 발의 |
| | | 1월 12일 | 3면 | 정수성 의원, 구석구석 주민 목소리 청취 |
| | | 12월 29일 | 3면 | 김석기 경주지역 총선 예비후보 12박 13일 민생투어, 오늘 스타트 |
| | | 12월 31일 | 2면 | 김석기 새누리당 경주시 국회의원 예비후보 ‘잘사는 경주건설’ 12박 13일 민생투어 |
| | | 1월 5일 | 3면 | “현장 소통으로 현안 찾아낼 것” |
| | | 1월 7일 | 3면 | 김석기 경주 예비후보, 발로 뛰는 민생소통 |
| 2016 국선 -자심7 | 중부 일보 | 12월 30일 | 10면 | “부시장때 느꼈던 문제들 직접 해결하기 위해 출마” |
| | | 12월 30일 | 17면 | 수원시정, 5년을 보내며 |
| | | 1월 5일 | 4면 | 이재준 전 수원 제2 부시장 더민주 경기도당 입당 |
| | | 1월 11일 | 4면 | “시민의 힘으로 장안구 바꾼다” |
| | | 1월 12일 | 5면 | 이재준(수원갑) “수원시 광역시로 승격시킬 것” |
| | | 1월 18일 | 5면 | 이재준(수원갑) “전통시장 활성화 위해 스마트 기술 적용 필요” |

| 의결번호 | 매체명 | 보도일 | 지면 | 기 사 제 목 |
|---------------------|----------------|------------------------|-----|---|
| 2016 국선 -자심9 | 대경 일보 | 1월 5일 | 3면 | “포항의 새로운 변화·발전 이끌겠다” 새누리당 이창균 예비후보 |
| | | 1월 6일 | 2면 | 이창균 포항북 예비후보 (주)화인플랜택 방문 현장 목소리 귀 기울여 |
| | | 1월 7일 | 3면 | “포항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에 앞장서겠다” |
| | | 1월 11일 | 3면 | 이창균, 민심 변화 감지 “서민경제 반드시 살린다” |
| | | 1월 12일 | 3면 | “공약과 비전을 제시하는 공정선거 촉구” |
| | | 1월 13일 | 2면 | “시내버스 공공성과 효율성 충족해야” |
| | | 1월 14일 | 2면 | “살기 좋은 두호동 건설 노력” 당부 |
| | | 1월 15일 | 2면 | “농업 경쟁력 강화 위해 적극 앞장” 약속 |
| | | 1월 18일 | 2면 | “재래시장 활성화…독특한 콘텐츠 개발 시급” |
| | | 12월 16일 | 2면 | 박승호 예비후보 본격 선거 홍보전 |
| | | 12월 22일 | 2면 | “TP2단지, 정치쟁점화 현실 안타깝다” |
| | | 12월 29일 | 2면 | “깨끗한 정치 실현하겠다” 박승호 포항북 예비후보 |
| | | 12월 30일 | 2면 | “청렴한 선거문화 조성 위해 앞장설 것” |
| | | 1월 5일 | 3면 | “잃어버린 정치신뢰 회복하겠다” |
| | | 1월 6일 | 2면 | 새누리당 박승호 예비후보 흥해지역 민생탐방 나서 상인·농민들과 소통의 장 |
| | | 1월 7일 | 3면 | 박승호 예비후보 “체육인이 지역발전 앞장” |
| | | 1월 8일 | 2면 | “새로운 정치 실현 위해 국민만 보고 일하겠다” |
| | | 1월 8일 | 3면 | 박승호 예비후보 “흥해 노정삼 애환 귀 기울여” |
| | | 1월 11일 | 3면 | “열사봉공의 자세로 열심히 발로 뛰겠다” |
| | | 1월 13일 | 3면 | 여성기업인 회장단 만나 현장애로 ‘경청’ |
| 1월 14일 | 3면 | “아이들 건강하게 자라는 환경 만들어야” | | |
| 2016 국선 -자심11 | 경인 종합 일보 | 12월 15일 | 3면 | 前 남양주 시의원 남혜경, 국회의원 출마 선언 |
| | | 12월 28일 | 3면 | 남혜경 예비후보 독특한 선거운동 화제 |
| | | 1월 12일 | 2면 | “행복한 남양주시의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 |
| | | 1월 26일 | 2면 | 이제는 배우자의 외조를 보여줄 때 |
| 2016 국선 -자심13 | 일간 경기 | 12월 16일 | 13면 | 안산시민 염원 담아 발걸음 내딛어 |
| | | 12월 30일 | 13면 | “역사문제 일관된 원칙…” 지속 바란다 |
| | | 1월 5일 | 13면 | 박순자 예비후보, “안산, 새로운 도약 필요…” |
| | | 1월 8일 | 3면 | “10년 앞서가는 안산을 만들겠다” |
| | | 1월 15일 | 13면 | 박순자 예비후보 “신안산선 2017년 착공 불안” |

| 의결번호 | 매체명 | 보도일 | 지면 | 기 사 제 목 |
|---------------------|-----------|---------------------------------|----|---------------------------------|
| 2016 국선 -자심14 | 대구 신문 | 12월 21일 | 3면 | 이재만 “동구 보살핌 봉사자 될 것” |
| | | 1월 20일 | 4면 | 동구를 이재만 ‘소음피해 보상’ 최우선 공약 |
| | | 1월 21일 | 4면 | 청년 일자리 활성화 토론회 |
| | | 1월 22일 | 4면 | “동촌유원지 일대 옛 도로, 특화거리로 조성” |
| | | 1월 25일 | 4면 | 동구를 이재만, 어린이집 일일교사 활동 |
| 2016 국선 -자심15 | 포천 신문 | 1월 1일 | 6면 | 김영우 의원은 사퇴하라 |
| | | 1월 10일 | 6면 | 지역 국회의원의 욕망과 반성 |
| | | 1월 20일 | 6면 | 전철 7호선…양주서 포천까지 연장할 수 있나? |
| | | 1월 20일 | 6면 | 포천에는 전철을 반드시 유치해야 한다 |
| 2016 국선 -자심26 | 경안 일보 | 12월 14일 | 2면 | 김희국 의원, 2015년 국정감사 우수위원 선정 |
| | | 1월 11일 | 2면 | 김희국 의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8일 본회의 통과 |
| | | 1월 27일 | 2면 | 김희국 의원, 서민잡는 건보료 즉시 개선 촉구 |
| | | 1월 29일 | 2면 | 김희국 의원, 도심형 뉴스테이 추진 |
| | | 2월 2일 | 2면 | 김희국 의원, 정치·경제·사회개혁 3대 과제 각각 제시 |
| 2016 국선 -자심27 | 대전 투데이 | 12월 15일 | 2면 | 이은권 전 중구청장 총선 출마선언 “청춘 중구 만들겠다” |
| | | 1월 5일 | 2면 | 새누리당 대전시당 “충청실리론으로 선거입찰터” |
| | | 1월 8일 | 2면 | “보문산에 대전랜드마크 보문타워 건립” |
| | | 1월 15일 | 2면 | 이은권 “서대전역 고속전철화 앞당기겠다” |
| | | 1월 22일 | 2면 | 이은권 예비후보 “창조관광으로 원도심 활성화” |
| | | 1월 27일 | 2면 | 이은권 국회의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27일 개소식 |
| | | 1월 28일 | 3면 | ‘청춘중구’ 위한 힘찬 발걸음 |
| | | 1월 29일 | 3면 | “쇠퇴한 중구경제 반드시 살려내겠다” |
| | | 2월 5일 | 2면 | “청춘의 열정 넘치는 따뜻한 중구 건설” |
| 2월 12일 | 2면 | 수서발 고속철도 서대전역 경유 ‘증편촉구 서명운동’ 호응 | | |

| 의결번호 | 매체명 | 보도일 | 지면 | 기 사 제 목 |
|---------------------|----------|---------|-----|-------------------------------------|
| 2016 국선 -자심28 | 경북 매일 | 12월 15일 | 3면 | 울진 등 지역구 특별교부세 12억 확보 |
| | | 1월 21일 | 3면 | 강석호 의원, 농업인 실용교육 격려 |
| | | 1월 22일 | 3면 | 울진~분천 경북순환철 건설 본격화 |
| | | 2월 1일 | 3면 | 화재현장 찾은 강석호 의원 “郡과 신속한 복구 협의” 약속 |
| | | 2월 3일 | 2면 | 영덕군 도·군의원들 강석호 의원 지지선언 |
| | | 2월 3일 | 2면 | 강석호 의원 “더 많은 일 할 수 있게 기회 달라” |
| | | 2월 4일 | 2면 | “울진SOC 마무리할 역량 갖춘 사람 필요” |
| | | 2월 11일 | 2면 | 강석호 “지역발전 위해 모든 능력 발휘할 것” |
| 2016 국선 -자심29 | 현대 일보 | 12월 17일 | 2면 | 주대준 “일자리 넘치는 광명으로” |
| | | 1월 18일 | 14면 | “공직·학자 경험 살려 최고 도시 만들 것” |
| | | 2월 3일 | 14면 | ‘국가 사이버 안보 고등연구원’ 설립 협조요청 |
| | | 2월 4일 | 14면 | 주대준 예비후보, 적십자 ‘희망나눔 명패’ 받아 |
| | | 2월 11일 | 14면 | 주대준 예비후보, 설연휴 가족과 시장 방문 |
| 2016 국선 -자심30 | 경인 매일 | 1월 4일 | 6면 | 안산 시민 모두가 희망의 한해 되길 |
| | | 1월 15일 | 6면 | “우수소공인들 육성제도 마련해야” |
| | | 1월 29일 | 14면 | 소사원시선 문제해결 나섰다 |
| | | 2월 1일 | 4면 | ‘야무지고 똑부러지게 일 잘하는 국회의원’ 평판 |
| | | 2월 4일 | 6면 | “분열 아닌 포용·통합의 정치 실현” |
| 2016 국선 -자심35 | 일간 경기 | 12월 30일 | 7면 | 퇴임 앞둔 수원시 제2부시장 “행복했습니다” |
| | | 1월 12일 | 3면 | “정치를 시민 품에 돌려드리겠습니다” |
| | | 1월 20일 | 7면 | “장안구 아파트 환경 바꾸겠다” |
| | | 2월 16일 | 7면 | 수원시 더민주당 사·도의원 성명 |
| | | 2월 19일 | 3면 | 더민주 수원갑 이재준 예비후보 지지선언 |
| 2016 국선 -자심36 | 현대 일보 | 1월 13일 | 2면 | 김철민 출마선언, “민음의 정치 하겠다” |
| | | 1월 19일 | 2면 | 김철민 예비후보, 세월호 정부합동분향소 참배 |
| | | 1월 20일 | 2면 | 김철민 예비후보, 총선후보 자격심사 통과 |
| | | 1월 27일 | 2면 | 김철민 예비후보, 출근 인사로 지지 호소 |
| | | 2월 2일 | 2면 | 김철민 예비후보, 슬로건 “시민과 더불어, 상록乙 바꾸자” |
| | | 2월 4일 | 2면 | 김철민 예비후보,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법제화 필요” |
| | | 2월 19일 | 2면 | 김철민 예비후보, “정의롭고 안전한 나라로” |
| | | 2월 24일 | 2면 | 김철민 예비후보, ‘반월공단 활성화방안’ 발표 |

| 의결번호 | 매체명 | 보도일 | 지면 | 기 사 제 목 |
|---------------------|----------|---------|----|----------------------------------|
| 2016 국선 -자심37 | 전국 매일 | 2월 4일 | 5면 | “국세청장 경험 살려 기업 유치·예산확보 총력” |
| | | 2월 5일 | 5면 | “서민층 일자리 10만개 만들겠다” |
| | | 2월 12일 | 5면 | “기업유치·관광산업 진흥 통해 일자리 창출” |
| | | 2월 15일 | 5면 | “전통시장 인근지역 주차공간 확보 시급” |
| | | 2월 17일 | 5면 | 한상울 예비후보, 출산장려 정책 허점 지적 |
| 2016 국선 -자심39 | 나주 신문 | 1월 25일 | 3면 | “호남 민심은 야당 체질개선과 정치 혁신 통한 정권 교체” |
| | | 2월 15일 | 4면 | 신정훈 의원, 백남기 농민 살려내라 도보순례 돌입 |
| | | 2월 22일 | 4면 | 신정훈 의원, 당내 농어민상생본부장 임명 |
| 2016 국선 -자심43 | 기호 일보 | 12월 31일 | 5면 | 박광운, “수원 망포동에 초교 신설 확정” |
| | | 1월 11일 | 6면 | 청명중 체육관 14억 건립 지원 |
| | | 3월 4일 | 5면 | 박광운, 수원정 예비후보로 첫 일정 소화 |
| | | 3월 7일 | 5면 | 박광운 연기금 투자정책 더민주 공약화 |
| | | 3월 10일 | 5면 | “삶의 격차 양산하는 경제정책 바로잡을 것” |
| | | 3월 14일 | 4면 | 박광운 “영통이 승리해야 수도권이 승리” |
| | | 3월 16일 | 5면 | 박광운, 광역교통청 등 7개 공약 발표 |
| 2016 국선 -자심44 | 서울 매일 | 12월 30일 | 3면 | 동수원 고가차도 소음 줄여 |
| | | 1월 6일 | 3면 | 화서역 에스컬레이터 운행 |
| | | 1월 7일 | 3면 | ‘찾아가는 동별 의정보고회’ 김용남 의원, 주민과의 소통 |
| | | 2월 2일 | 3면 | “설 준비는 전통시장 이용하세요” |
| | | 3월 11일 | 3면 | 서호천 산책로 가로등 설치 김용남, 보행 안전사고 예방 |
| | | 3월 21일 | 3면 | “출퇴근길에 만나요” |
| | | 2월 3일 | 3면 | ‘신구로 창조 3D’ 공약실현 제시 |
| | | 2월 12일 | 3면 | “남구로시장에서 설준비해요” |
| | | 2월 29일 | 3면 | ‘신구로창조 3D’ 비전 발표 |
| | | 3월 4일 | 3면 | 힘지로 간 강요식 ‘이색홍보’ |
| | | 3월 21일 | 3면 | 힘지공천, 킬러공천 넘어서! |

| 의결번호 | 매체명 | 보도일 | 지면 | 기 사 제 목 |
|---------------------|----------------|--------|-----|--|
| 2016 국선 -자심48 | 경인 매일 | 1월 19일 | 4면 | “무책임한 정치행태는 법의 심판 받게 될 것” |
| | | 2월 4일 | 4면 | 19대 의정활동 종합평가 1위· “1등 덕양 만들 것” |
| | | 2월 5일 | 14면 | 창릉천 정비사업 ‘가속페달’ |
| | | 2월 17일 | 4면 | 김태원 의원, 제19대 국회 ‘종합헌정대상’ 수상 |
| | | 3월 14일 | 4면 | 김태원, 새누리 고양시를 공천 확정 |
| | | 3월 28일 | 4면 | “주민과의 약속을 실천한 평가 받게 돼 기뻐” |
| | | 4월 1일 | 4면 | “3선 큰 일꾼 되어 덕양발전 완성” |
| | | 4월 4일 | 4면 | “교통, 일자리와 상권 상승 견인” |
| 2016 국선 -자심49 | 강진 우리 신문 | 3월 9일 | 1면 | 황주홍 의원 지지선언 잇따라 |
| | | 3월 9일 | 2면 | 황주홍 의원, 20대 총선 출마선언 |
| | | 3월 9일 | 2면 | 황 의원, 강진지역 간담회가 열어 지역 현안 청취 |
| | | 3월 16일 | 2면 | 황주홍 의원 저서 사인회 성황리 열려 |
| | | 3월 16일 | 2면 | 황주홍 의원, 9일 후원회 사무소 개소식 가져 |
| | | 3월 23일 | 1면 | 황주홍 후보, 국민의당 공천 확정 |
| | | 3월 23일 | 2면 | 황주홍 후보, 감사인사 고충 방문 |
| | | 3월 29일 | 1면 | 전직군의회 의장들, 황주홍 후보 지지선언 |
| | | 3월 29일 | 2면 | 황주홍 후보, 배추·무·고추·마늘·양파 등 5대민감 품목 가격 안정화 약속 |
| | | 3월 29일 | 4면 | “강진군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사랑방으로 늘 함께하길” |
| 2016 국선 -자심50 | 도민 일보 | 2월18일 | 4면 | 황주홍, 19대 국회 환경베스트 의원 선정 |
| | | 3월3일 | 4면 | 황주홍 의원, 20대 총선 출사표 |
| | | 3월4일 | 4면 | “소록도 치유의 섬으로 거듭나야” |
| | | 3월9일 | 4면 | 황주홍 의원, 선거체제 본격 돌입 |
| | | 3월15일 | 4면 | 황주홍 대세론, 4개 군으로 확산 |

나. 주의

자체심의 의결 건수 중 주의 결정은 33건(60.0%)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매체유형 별로 살펴보면, 중앙일간지 4건, 지역일간지 13건, 종합주간지 1건, 지역주간지 15건이다. 위반 유형별로는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칼럼 및 기고 금지 위반이 9건, 광고제한 위반이 4건, 객관성 및 사실 보도 위반이 3건이다.

심의위원회는 선거기사의 내용이 법과 선거기사 심의기준을 위반하여 언론사에 대해 주의 환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주의 결정을 내렸다.

<주의 결정 보도 목록 -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 17건>

| 의결번호 | 매체명 | 보도일 | 지면 | 기 사 제 목 |
|-------------|-----------|---------|-----|--|
| 2016국선-자심1 | 파주저널 | 12월 16일 | 1면 | “류화선이 돌아왔습니다. 제대로 한 번 해보겠습니다!” |
| | | | 3면 | ‘제대로 한 번 해보겠습니다!’ |
| 2016국선-자심2 | 반월신문 | 12월 16일 | 7면 | “정치인은 기본적으로 행정가의 기질도 필요합니다” |
| 2016국선-자심3 | 충남일보 | 12월 18일 | 3면 | “포용으로 정치불신 해소할 터” 최명길 총선 예비등록자, 유성 출마선언 |
| 2016국선-자심4 | 경기신문 | 12월 18일 | 20면 | “수도권 규제완화 등 앞장… 용인발전 10년 앞당겼다고 생각” |
| | | 12월 28일 | 20면 | “용인 발전에 최선… 새해에도 성과로 보여주는 정치할 터” |
| 2016국선-자심6 | 부천신문 | 12월 24일 | 4면 | 손숙미의 자신감 “여론조사해보니 좋은 조짐” |
| 2016국선-자심8 | 현대일보 | 12월 30일 | 2면 | 박인균 예비후보 이색 선거명함 |
| 2016국선-자심10 | 대경일보 | 1월 8일 | 2면 | 이재만, 새누리 지지층서 유승민 앞서 |
| 2016국선-자심16 | 매일경제 | 1월 13일 | 5면 | 朴 “대구 달성에 나가달라” 추경호 총선 출마 직접 권유 |
| 2016국선-자심18 | 거창韓 뉴스 | 1월 18일 | 1면 | 강석진 새누리당 복당 결정 선거전 요동 |
| | | 1월 25일 | 1면 | 강석진 예비후보 ‘젠걸음’ |
| | | 1월 25일 | 13면 | 제20대 총선 강석진 예비후보 기자회견문 |
| 2016국선-자심19 | 전주일보 | 1월 18일 | 3면 | 이춘석, ‘올 들어 벌써 29억’ |

| 의결번호 | 매체명 | 보도일 | 지면 | 기 사 제 목 |
|-------------|----------|--------|-----|---------------------------------------|
| 2016국선-자심20 | 전라일보 | 1월 20일 | 3면 | 임정엽 예비후보, ‘군수시절 성과’ 눈길. 선거구도 ‘안갯속’ 전망 |
| 2016국선-자심25 | 함양신문 | 1월 25일 | 4면 | ‘강석진’ 국회의원선거 출사표 던지다 |
| 2016국선-자심31 | 서대문 자치신문 | 1월 30일 | 8면 | 서대문을지역 아권 통합을 위해 노력할 터 |
| 2016국선-자심34 | 서울동부신문 | 1월 27일 | 1면 | 안형환 예비후보 지지 |
| 2016국선-자심38 | 전라일보 | 2월 4일 | 3면 | “설 명절 전 쌀 변동직불금 지불 바람직” |
| | | 2월 15일 | 3면 | 박민수 의원, 19대 국회 입법활동 왕성 |
| | | 2월 18일 | 3면 | 박민수 의원, 19대 국회 의정활동 ‘17위’ |
| | | 2월 23일 | 3면 | “농업경영비 절감사업 예산 대폭 투입해야” |
| | | 2월 25일 | 3면 | 박민수 의원, “쌀값 안정 환영” |
| 2016국선-자심45 | 영암신문 | 2월 26일 | 1면 | “태어난 곳 영암 출마 권유받아” |
| | | 2월 26일 | 3면 | “대한민국 개조하고 호남정신 재창조 하겠습니다.” |
| | | 3월 4일 | 7면 | 박준영 전 지사, 구국기도회 특별강의 |
| 2016국선-자심51 | 선경일보 | 4월 4일 | 12면 | 여주 중앙로 문화의 거리 입구에서 출정식 열어 |

<주의 결정 보도 목록 - 광고 제한 위반 4건>

| 의결번호 | 매체명 | 보도일 | 지면 | 기 사 제 목 |
|-------------|---------|--------|-----|-------------------------|
| 2016국선-자심17 | 한겨레 | 1월 14일 | 12면 | 표창원 정의의 적들 |
| | | 1월 19일 | 14면 | 표창원 정의의 적들 |
| 2016국선-자심23 | 아시아 타임즈 | 1월 20일 | 18면 | “왜 정치는 우리 삶을 바꾸지 못하는가?” |
| 2016국선-자심24 | 세계일보 | 1월 26일 | 2면 | “왜 정치는 우리 삶을 바꾸지 못하는가?” |
| | | 1월 29일 | 6면 | “왜 정치는 우리 삶을 바꾸지 못하는가?” |
| 2016국선-자심55 | 연수송도신문 | 3월 30일 | 8면 | 연수구(을) 새누리당 기호1번 민경욱 후보 |

<주의 결정 보도 목록 - 칼럼 및 기고 게재 금지 위반 9건>

| 의결번호 | 매체명 | 보도일 | 지면 | 기 사 제 목 |
|-------------|---------|--------|-----|---------------------------------------|
| 2016국선-자심12 | 경인 종합일보 | 1월 25일 | 14면 | 국회의원 선거구 없는 현역의원은 무죄? 정치신인은 유죄? |
| 2016국선-자심21 | 강서양천신문 | 1월 18일 | 11면 | 카드수수료 우대적용대상 5억원으로 확대해야 |
| 2016국선-자심22 | 철원신문 | 1월 19일 | 10면 | 찬란한 태양 바라보며 올 한해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
| 2016국선-자심32 | 시민일보 | 1월 29일 | 3면 | 국민을 위한 정치 선진화의 길 |
| 2016국선-자심33 | 경인매일 | 2월 16일 | 8면 | 전철 7호선 연장 의정부 구간은 재추진 되어야 한다! |
| 2016국선-자심41 | 아시아일보 | 2월 17일 | 4면 | ‘전철 7호선 연장사업’ 의정부에 4개역은 추진되었어야 한다 |
| 2016국선-자심42 | 강남포스트 | 2월 17일 | 2면 | 성명서 |
| 2016국선-자심47 | 양천신문 | 2월 29일 | 2면 | “조국 부름 받아 월남전 참전한 용사들 기리는 날 필요” |
| 2016국선-자심54 | 종로신문 | 3월 30일 | 7면 | 복지 대한민국을 위해 뛰겠습니다 |

<주의 결정 보도 목록 - 객관성 및 사실보도 위반 3건>

| 의결번호 | 매체명 | 보도일 | 지면 | 기 사 제 목 |
|-------------|------|--------|----|-----------------------|
| 2016국선-자심40 | 울진신문 | 2월 21일 | 1면 | 전광삼, 강석호 맞대결 전 후보 우세 |
| 2016국선-자심46 | 일요서울 | 3월 7일 | 8면 | ‘진박논란’ 전승-전패 이번은 깨지나? |
| 2016국선-자심53 | 문화일보 | 3월 30일 | 6면 | 사상 첫 ‘약사’의사’ 국회 되나 |

다. 권고

자체심의 결과 권고 결정은 1건(1.8%)에 그쳤다. 심의위원회는 심의기준에 위반되거나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권고 조치하였다.

<권고 결정 보도 목록 -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

| 의결번호 | 매체명 | 보도일 | 지면 | 기 사 제 목 |
|-------------|------|--------|----|----------------|
| 2016국선-자심52 | 남해시대 | 3월 15일 | 4면 | ‘김두관’ 국회입성 확실시 |

3. 매체유형별 분석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 자체심의 대상매체는 일간지 123개(중앙지 23, 지역지 96, 기타 4), 주간지 230개(종합주간 14, 지역주간 216), 월간지 7개, 뉴스통신이 6개로 총 366개 매체였다.

이 가운데 중앙일간지 4개, 지역일간지 23개, 종합주간지 1개, 지역주간지 19개 등 모두 47개 매체가 선거기사 심의기간 중 최소 1건 이상 제재를 받았다. 심의대상 매체 대비 위반 매체 비율은 약 12.8%로 집계되었다.

자체심의대상 매체 중 중앙일간지에 대해서는 4개 매체에 대해 주의 4건의 제재조치가 내려졌다. 위반유형별로는 광고제한 위반이 2건,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과 객관성 및 사실보도 위반이 각 1건이다.

지역일간지는 자체심의대상 매체 96개 가운데 23개 매체가 총 31건의 제재조치를 받았다. 결정 내용별로는 경고 18건, 주의 13건이 의결되었으며, 위반유형별로는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26건, 칼럼 및 기고 등 게재 금지 위반이 4건, 광고제한 위반이 1건으로 나타났다.

종합주간지 심의대상매체 14개 중 1개 매체에 대해 객관성 및 사실보도 위반으로 1건의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지역주간지의 경우 심의대상매체 216개 가운데 19개 매체가 19건의 제재를 받았다. 경고 3건, 주의가 15건, 권고 1건이며 위반유형별로는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12건, 칼럼 및 기고 게재 금지 위반이 5건, 광고제한과 객관성 및 사실보도 기준 위반이 각 1건씩으로 나타났다.

심의대상 매체 중 가장 많은 횟수의 제재를 받은 언론사를 살펴보면, 지역일간지 경인매일(경고 2, 주의 1)과 현대일보(경고 2, 주의 1)가 각각 3건의 제재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지역일간지인 경인종합일보(경고 1, 주의 1), 대경일보(경고 1, 주의 1), 일간경기(경고 2), 전라일보(주의 2)가 각각 2건씩의 제재조치를 받아 뒤를 이었다.

<매체별 위반현황(자체심의)>

| 간 별 | 매체명 | 구분 | 위 반 유 형 | | | | 결 정 내 용 | | | |
|-----------|--------|----|-----------------|------------------|----------|------|-------------------|----|----|----|
| | | 계 | 공정성 및 형평성 | 객관성 및 사실보도 | 광고 제한 | 기고 등 | 정정 보도문 등 게재 | 경고 | 주의 | 권고 |
| 중앙 일간지 | 매일경제 | 1 | 1 | | | | | | 1 | |
| | 문화일보 | 1 | | 1 | | | | | 1 | |
| | 세계일보 | 1 | | | 1 | | | | 1 | |
| | 한겨레 | 1 | | | 1 | | | | 1 | |
| | 소 계 | 4 | 1 | 1 | 2 | 0 | 0 | 0 | 4 | 0 |
| 지역 일간지 | 경기신문 | 1 | 1 | | | | | | 1 | |
| | 경북신문 | 1 | 1 | | | | | 1 | | |
| | 경안일보 | 1 | 1 | | | | | 1 | | |
| | 경인매일 | 3 | 2 | | | 1 | | 2 | 1 | |
| | 경인종합일보 | 2 | 1 | | | 1 | | 1 | 1 | |
| | 경북신문 | 1 | 1 | | | | | 1 | | |
| | 기호일보 | 1 | 1 | | | | | 1 | | |
| | 도민일보 | 1 | 1 | | | | | 1 | | |
| | 대경일보 | 2 | 2 | | | | | 1 | 1 | |
| | 대구신문 | 1 | 1 | | | | | 1 | | |
| | 대전투데이 | 1 | 1 | | | | | 1 | | |
| | 서울매일 | 1 | 1 | | | | | 1 | | |
| | 선경일보 | 1 | 1 | | | | | | 1 | |
| | 시민일보 | 1 | | | | 1 | | | 1 | |
| | 아시아일보 | 1 | | | | 1 | | | 1 | |
| | 아시아타임즈 | 1 | | | 1 | | | | 1 | |
| | 일간경기 | 2 | 2 | | | | | 2 | | |
| | 중부일보 | 1 | 1 | | | | | 1 | | |
| | 전국매일 | 1 | 1 | | | | | 1 | | |
| | 전주일보 | 1 | 1 | | | | | | 1 | |
| 전라일보 | 2 | 2 | | | | | | 2 | | |
| 충남일보 | 1 | 1 | | | | | | 1 | | |
| 현대일보 | 3 | 3 | | | | | 2 | 1 | | |
| 소 계 | 31 | 26 | 0 | 1 | 4 | 0 | 18 | 13 | 0 | |

| 간 별 | 매체명 | 구분 | 위 반 유 형 | | | | 결 정 내 용 | | | |
|-----------|---------|--------|-----------------|------------------|----------|-------|-------------------|-------|-------|------|
| | | 계 | 공정성 및 형평성 | 객관성 및 사실보도 | 광고 제한 | 기고 등 | 정정 보도문 등 게재 | 경고 | 주의 | 권고 |
| 종합 주간지 | 일요서울 | 1 | | 1 | | | | | 1 | |
| | 소 계 | 1 | 0 | 1 | 0 | 0 | 0 | 0 | 1 | 0 |
| 지역 주간지 | 강서양천신문 | 1 | | | | 1 | | | 1 | |
| | 강진우리신문 | 1 | 1 | | | | | 1 | | |
| | 강남포스트 | 1 | | | | 1 | | | 1 | |
| | 거창韓뉴스 | 1 | 1 | | | | | | 1 | |
| | 나주신문 | 1 | 1 | | | | | 1 | | |
| | 남해시대 | 1 | 1 | | | | | | | 1 |
| | 반월신문 | 1 | 1 | | | | | | 1 | |
| | 부천신문 | 1 | 1 | | | | | | 1 | |
| | 서대문자치신문 | 1 | 1 | | | | | | 1 | |
| | 서울동부신문 | 1 | 1 | | | | | | 1 | |
| | 양천신문 | 1 | | | | 1 | | | 1 | |
| | 영암신문 | 1 | 1 | | | | | | 1 | |
| | 연수송도신문 | 1 | | | 1 | | | | 1 | |
| | 울진신문 | 1 | | 1 | | | | | 1 | |
| | 종로신문 | 1 | | | | 1 | | | 1 | |
| | 파주저널 | 1 | 1 | | | | | | 1 | |
| | 포천신문 | 1 | 1 | | | | | 1 | | |
| | 철원신문 | 1 | | | | 1 | | | 1 | |
| | 함양신문 | 1 | 1 | | | | | | 1 | |
| 소 계 | 19 | 12 | 1 | 1 | 5 | 0 | 3 | 15 | 1 | |
| 총 계 | | 55 | 39 | 3 | 4 | 9 | 0 | 21 | 33 | 1 |
| | | 100.0% | 70.9% | 5.5% | 7.3% | 16.4% | 0.0% | 38.2% | 60.0% | 1.8% |

III. 시정요구 심의·의결 현황

심의위원회에 접수된 시정요구는 총 21건이다. 처리결과별로는 정정보도문 게재 결정 2건(9.5%), 경고결정문 게재 결정 3건(14.3%), 경고 1건(4.8%), 주의 4건(19.0%), 권고 2건(9.5%), 취하 4건(19.0%), 기각 5건(23.8%)이다. 매체유형별로는 중앙일간지 3건, 종합주간지 1건, 지역주간지 12건, 뉴스통신이 5건이다.

재심청구는 3건이 제기되었으며 모두 기각되었다.

1. 정정보도문 게재

후보자의 시정요구에 대한 정정보도문 게재 결정 2건은 지역주간지인 주간 파주In과 성동신문에 대해 내려졌다.

주간 파주In이 2016년 4월 8일자 1면 “황진하 후보, 금품선거 검찰 고발당해” 제하의 기사에서 황진하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가 지역 산악회 시산제에 참석하여 금품을 제공했다는 내용을 보도하자 황진하 후보는 본인이 검찰에 고발당한 사실이 없으며, 캠프 관계자가 시산제에 참석하여 돼지머리에 3만원을 꽂은 것에 불과하여 금품수수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심의위원회에 정정보도문 게재를 요구하였다. 심의위원회는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연락을 취하고 사실을 확인한 결과 황진하 후보가 고발당한 사실이 없는 점, 기사에 황 후보측 반론이 전혀 실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정정보도문 게재를 결정하고 보도문에 황 후보측 반론을 포함시키도록 하였다.

성동신문은 2016년 4월 6일자에 성동구 보훈 관련 단체의 질의에 대한 후보자들의 답변을 보도하면서 “새누리당의 김동성 후보와 국민의당 서경선 후보 등 2명만이 관심을 갖고 답변을 보내왔다”며 홍익표 후보를 제외한 다른 후보들의 답변만을 게재하였다. 이에 홍익표 후보는 성동신문 측이 보낸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을 기한에 맞추어 송부하였음에도 성동신문이 보도하지 않았다고 정정보도문 게재를 요구하였다. 성동신문은 홍익표 후보 측의 답변이 기한 내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담당자 실수로 답변 메일을 확인하지 못하였다며 홍 후보의 답변 내용을 성동신문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였다고 해명하였다. 이에 대하여 홍익표 후보측은 방문자가 거의 없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후속 보도한 것은 적절한 후속조치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추가로 제출하였다. 심의위원회는 성동신문에 대해 보도 전에 후보자의 답변 유무를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잘

후된 사실보도에 대한 정정은 지면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여 정정보도문 게재 결정을 내렸다.

2. 경고결정문 게재

후보자의 시정요구에 대한 경고결정문 게재 결정은 총 3건이다.

지역주간신문 한길뉴스는 2016년 1월 4일자 지면에 경북 김천 선거구에 출마한 당시 현역 국회의원 이철우 후보가 사기꾼 조희팔이 투자한 김천삼애원의 시행사인 대상건설팅의 고문을 맡았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경쟁 후보를 부각하였으며, 이철우 후보 측이 의정보고회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한길뉴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 등을 보도하였다. 이철우 후보는 이에 대해 이 후보가 대상건설팅의 고문을 맡은 사실이 없고, 한길뉴스의 보도가 편파적이고 일방적이라며 심의위원회에 정정보도문 게재 결정을 요구하였다. 심의위원회는 한길뉴스의 주장에 대해 사법기관의 결정 등이 없어 허위사실 여부 판단이 어려운 점, 한길뉴스가 과거 유사한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고 구체적 사실 확인 없이 반복하여 같은 내용을 게재한 점, 객관적으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길뉴스의 보도가 현저히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었다고 판단하고 경고결정문 게재 결정을 내렸다. 한길뉴스는 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 이후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재심결정문 수령 후 신문을 발행하지 않아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해당 내용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였으나 자체종결 처리되었다.

지역주간신문 오산타임뉴스는 2015년 12월 29일자 3면과 4면에 현역 국회의원이었던 안민석 후보가 국비 확보 내역을 부풀려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고 이에 대해 안민석 후보는 해당 기사가 시민들을 호도할 수 있는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기사이며 반론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심의위원회에 정정보도문 게재 및 경고 결정을 요구하였다. 심의위원회는 양측 의견을 검토한 후 심의대상 기사가 총 사업비 400억원 가운데 국비 200억원이 지원될 예정임에도 단지 국비 30억원만이 지원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도록 한 점, 안 의원 측 반론을 전혀 게재하지 않은 점, 타 후보 보도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고결정문 게재를 결정하였다. 오산타임뉴스는 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신문 발행을 하지 않아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해당 내용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였으나 역시 자체종결 처리되었다.

종합주간지인 일요서울은 2016년 2월 15일자 1면과 2면에 새누리당 대구시당 당원명부 일부를 입수하였다며 해당 명부가 '유령당원' 명부이고 이를 직접 확인하였다고 보도하면서 대구시당 당협 위원장을 지낸 유승민 후보가 이 명부를 관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유승민 후보 측

은 일요서울 측이 입수한 명부에는 실제 당원이 과거에 사용하던 번호가 기재되어 있거나 전화번호가 잘못 표기되어 있고, 심지어 정상적인 당원이 포함되어 있는데도 이들 모두를 유령당원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등의 이유로 심의위원회에 정정보도문 게재 결정을 요구하였다. 심의위원회는 유승민 후보가 유령당원을 관리했다는 직접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점, 실제 언론사가 전화 확인한 것은 20명에 불과함에도 “본지, 200명에 일일이 전화해 확인”하였다는 부제목을 사용한 점, 20명 중 통화가 연결되지 않은 사람이 있음에도 모두 유령당원으로 간주하여 “사실상 90%가 유령당원인 셈”이라고 과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고결정문 게재 결정을 내렸다. 일요서울은 재심 청구 없이 심의위원회 결정을 수용하여 경고결정문을 게재하였다.

3. 경고

심의위원회는 시정요구 안건 가운데 1건에 대하여 경고 결정을 내렸다.

뉴스통신사인 국제뉴스는 2016년 2월 4일부터 3월 1일까지 정종섭 후보의 동정 등에 관한 기사를 18건 게재하면서 현역 의원이었던 류성걸 후보의 동정 관련 보도는 1건도 게재하지 않았고, 오히려 3월 2일자 기사에서 류성걸 후보의 2016년 의정보고서가 허구라는 내용의 비판적 성명서를 그대로 보도하였다. 류성걸 후보는 국제뉴스의 보도가 선거기사심의기준에 위배된다며 심의위원회의 조치를 요구하였다. 심의위원회는 특정 후보자에 관하여 우호적인 기사를 반복하여 보도하면서 경쟁 후보자에 관해서는 일방적 반대 성명서만을 보도한 것은 후보자들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언론사에 대해 경고 조치하였다.

4. 주의

심의위원회가 후보자의 시정요구에 대해 내린 주의 결정은 총 4건이다.

거창군민신문은 2016년 1월 4일자 1면에 보궐선거 유발 중도사퇴자 감산점 때문에 강석진 후보의 새누리당 복당이 어려워 사실상 4.13 총선 출마가 어렵다고 보도한 후 강 후보가 복당한 뒤인 같은 달 18일자 지면에서는 강 후보가 과거 최경환 원내대표 비서실장으로 가면서 신성범 국회의원에게 ‘거창에서는 어떠한 선출직에도 출마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다. 이에 강석진 후보는 자신은 중도사퇴자 감산점 규정 적용대상이 아니고, 그러한 약속을 한 사실도 없어 이

러한 보도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심의위원회의 조치를 요구하였다. 심의위원회는 새누리당 사무처에 조회한 결과 해당 감산점 규정이 강 후보에게 적용되지 않는 점을 확인한 후 해당 기사의 단정적인 표현, 후보자 감산점 규정에 대한 충분한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고 보도한 점, 기사에 취재원이나 취재 과정이 명확히 드러나 있지 않은 점, 후보자 측 반론을 전혀 보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의 조치하였다.

윤관석 후보는 뉴스통신사인 뉴시스가 2016년 2월 22일자 기사에서 여론조사결과 조전혁 후보가 윤관석 후보에 크게 앞섰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조 후보의 출마의 변 및 주요 공약을 소개하자 공정성 위반을 이유로 심의위원회에 반론보도문 게재 조치를 요구하였다. 심의위원회는 해당 보도가 후보자 간에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 것으로서 여타 후보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주의 조치하였다.

지역주간지인 의정부소식은 2016년 2월 4일자 1면에 김남성 후보가 전 한나라당 당협위원장 이력을 전 새누리당 당협위원장으로 표기하여 배포하였다는 기사를 게재하고 경쟁 후보의 선거 출마 소식을 같은 지면에 나란히 보도하였다. 또한 3월 3일자 1면에도 김남성 후보가 당명 혼동 경력기재로 유권자 혼란을 야기하였다는 기사와 경쟁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성황리에 개최되었다는 기사를 나란히 배치하였다. 이에 김남성 후보는 해당 보도가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려 한 것이라며 심의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하였다. 심의위원회는 이에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기사를 같은 지면, 유사한 위치에 반복적으로 게재하는 것은 후보자간의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 것으로 판단하여 주의 조치하였다.

안산 지역주간지 반월신문은 2016년 4월 6일자에 김명연 후보와 경쟁 후보에 대한 의혹 기사를 게재하고 선거 당일인 4월 13일자 1면에 김명연 후보가 투표 대가로 탈북주민에게 쌀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보도하였다. 김명연 후보는 타 선거구에서도 고소고발 등 공방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특정 지역구의 의혹만을 보도한 것은 악의적인 행태이며, 후보자가 대응할 시간도 없이 선거 당일 허위사실을 보도하는 등 부정하게 선거에 개입하였다며 심의위원회에 경고 조치를 요구하였다. 심의위원회는 이러한 기사는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거관련 사실을 객관적 근거 없이 보도한 것이며, 선거 당일 배포된 보도는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충분한 취재나 반론 기회의 제공 없이 그대로 보도한 것으로서 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주의 조치하였다.

5. 권 고

후보자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2건의 권고 조치가 이루어졌다.

내일신문이 2016년 3월 2일자 4면에서 인천시 계양구갑 선거구 야권 예비후보자들에게 대해 보도하면서 해당 선거구에 출마한 유동수 후보를 누락하여 보도하자 유동수 후보는 심의위원회에 정정보도문 게재 결정을 요구하였다. 심의위원회는 후보자 간의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 보도임이 이유로 보도시 후보자 간의 균형을 고려해 줄 것을 권고하였다.

포천신문은 2016년 3월 1일자에 김영우 후보에 대한 비판적 내용을 담은 총 4건의 기사 및 기자 칼럼을 게재하였다. 김영우 후보는 이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에 선거법 위반 여부 심의 및 조치를 요구하였다. 심의위원회는 제목과 기사 본문에서 공정한 입장을 유지하지 못한 채 감정이 개입된 표현을 사용한 것은 심의기준 위반으로서, 감정적 표현을 자제하여 보도할 것을 권고하였다.

6. 취 하

4건의 시정요구는 후보자 측의 요청에 의하여 취하되었다.

경기 수원시갑에 출마한 박종희 후보는 뉴시스가 2016년 2월 22자 기사에서 경쟁 후보에 대해 제기된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는 취지로 보도하자 유권자의 인식과 판단을 호도하고 왜곡하였다고 정정보도문 게재를 요구하였으나 추후 취하하였다.

인천 연수구을에 출마한 민경욱 후보는 인터넷 배너광고용으로 제공한 시안을 지면에 게재하여 후보자가 불법선거운동을 한다는 의혹에 휘말리게 한 연수송도신문에 대해 정정보도문 게재를 요청하였으나 추후 취하하였다. 다만 해당 보도에 대해서는 광고제한 규정 위반으로 자체심의를 통해 주의 결정이 내려졌다.

인천 남동구을에 출마한 윤관석 후보는 문화일보가 2016년 4월 6일자 지면에서 후보의 공약이 과거 19대 국회의원선거 공약을 재탕한 것이라고 보도하자 심의위원회에 정정보도문 게재를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심의위원회는 해당 보도는 시정요구인의 반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반론보도문 게재를 결정하고 이에 대한 문화일보 측 재심청구 역시 기각하였다. 그러나 윤관석 후보는 추후 시정요구를 취하하였다.

서울 종로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후보는 연합뉴스 2016년 4월 10일자 보도에서 경쟁 후보의 지원 유세에 특정 인사가 합류했다는 것이 허위사실임을 이유로 정정보도문 게재를 요청하였으나 추후 취하하였다.

7. 기각

후보자의 시정요구에 대한 기각 결정은 5건이다.

영덕지역 주간지 포스트신문이 2016년 2월 19일자 1면에서 전광삼 후보의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의견을 비판하자 전광삼 후보는 실제 인터뷰가 없었음에도 인터뷰를 한 것처럼 폄하 보도하였다며 심의위원회에 반론보도문 게재 결정을 요청하였다. 포스트신문 측은 후보자가 요청한 반론보도문을 게재할 의향이 있음을 밝혀 왔으며, 심의위원회는 한 차례 결정을 유보하고 이후 반론보도문이 지면에 게재되었음이 확인되자 시정요구 기각을 확정하였다.

충남 홍성에 출마한 홍문표 후보는 지역 주간지 홍성신문의 4월 4일자 지면에 실린 선거운동 관련 사진에서 특정 후보의 포스터 등이 부각되게 촬영되었으나 다른 후보의 경우 후보자명과 기호, 정당 구분이 되지 않아 편파적인 기사라며 심의위원회의 조치를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심의위원회는 각 후보자들의 관련기사 크기·배치·형식 등이 균형 있게 보도된 점, 해당 기사의 내용이 특별히 편향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정요구를 기각하였다.

자치안성신문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경기 안성시 선거구에 출마한 각 후보자들에게 유권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전달하고 답변 내용을 지면에 게재하면서 이규민 후보의 답변 부분을 백지로 남겨두었다. 이규민 후보 측은 해당 언론사의 질문이 비상식적이고 편파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답변을 거부한 것인데 해당 지면을 백지로 남겨두어 후보의 이미지에 결정적인 피해를 입혔다며 심의위원회에 경고 조치를 요구하였다. 심의위원회는 다른 후보들에 대한 질문 내용을 고려하면 편파적으로 질문이 구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각 후보자별로 동일한 크기의 지면을 제공하고 답변 내용이 짧은 타 후보의 경우에도 일부 공백을 두고 지면을 발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불공정하거나 의도성이 있는 보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후보자의 시정요구를 기각하였다.

안산 단원구갑 선거구에 출마한 김명연 후보는 뉴스통신사인 뉴시스에서 경쟁 후보를 2배 가까이 많이 보도하였으며 김명연 후보 측 보도자료는 능장 보도하고 경쟁 후보의 보도자료 내용은 즉시 보도하는 등 편파보도하였다며 심의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하였다. 심의위원회는 보도횟수, 게재 방식, 구체적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보도의 공정성, 형평성을 위배하였다거나 의도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후보자의 시정요구를 기각하였다.

동아일보가 2016년 4월 6일자 사설에서 박용진 후보 측 관계자들의 경쟁 후보 폭행 의혹을 거론하자 박용진 후보 측은 해당 사건과 후보자 측은 아무 관계가 없으며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일을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였다며 정정보도문 게재를 요구하였다. 심의위원회는 경찰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아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았고, 해당 사설에서 이미 더불어민주당의 반론을 게재한

점, 폭행 여부와 관련하여 현재 수사 중이라는 사실도 밝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당 사설이 부당하게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게재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시정요구를 기각하였다.

